

밑빠진 독... 매년 조단위 정부지원에도 '구조조정 낙제점'

이동걸 産銀회장 취임 1년

(2) 혈세 5000억원도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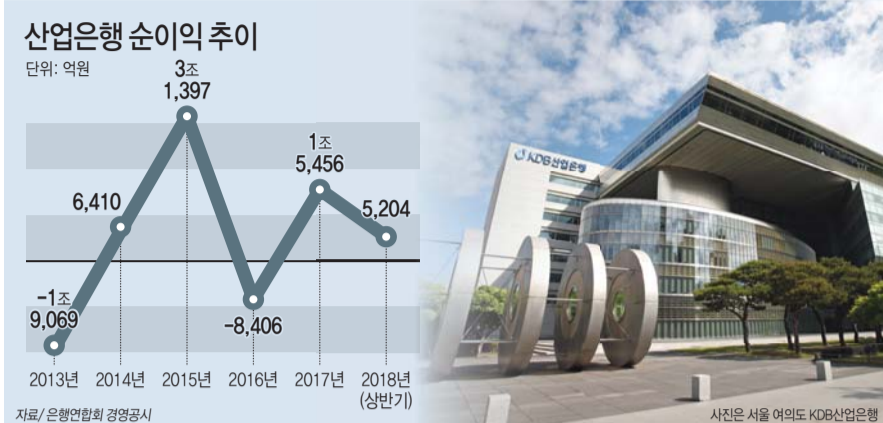
간접적 지원 꾸준... 이번엔 직접지원 부실기업 정비·신성장 산업 키워야

“5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10조원은 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지원금으로 얼마 정도면 충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몇 년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까먹은 돈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이 취임 당시 “(산은은) 국책은행을 넘어 국내 산업 구조개편과 새 성장 동력을 이끌면서 잘 키우면 경쟁력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던 자신감은 1년 만에 바뀌었다.

그는 “산은의 역할과 임무가 있지만 어



려운 것이 스스로 벌어서 정책금융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박에 의해 부실기업을 산은이 떠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고 토로했다.

사실 산은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은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가 한국도 지주태공사 출자증권 1조2000억원,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억원 등 총 2조원 규

모의 현물출자를 했고, 2016년과 2017년 중 각각 3062억원, 3931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쓰이지 않았지만 수출입은행과 산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산은법에 따라 산은이 산금채 발행을 독점하고 있어 업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 융통성도 확보된 셈이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취임 당시 “과거 실패와 잘못을 떠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기업 부실이 산은의 책임이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십여년 동안 부실 대기업을 떠안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누적된 탓”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엔 직접지원금을 받게되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에 현금 출자를 하기 위한 6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한 ‘혁신모험펀드’에 산은이 1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 출자액은 5000억원이다.

필요한 금액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지만 떠맡은 부실기업은 재정비를 하는 동시에 혁신·신성장 산업은 키워야 한다.

그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키우는 것

은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유망기업을 차근차근 발굴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는 빛을 못 보겠지만 다음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길게 보자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의 실적은 2013년 1조9069억원 순손실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6410억원, 3조1397억원 이익, 다시 2016년 8406억원 순손실 등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변동폭이 컸다.

산은에 따르면 상반기 순이익은 520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급감했다.

연간으로도 실적이 개선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회장은 “한국GM 투자금을 비롯해 구조조정 관련해 상각이 이뤄지면 올해도 이익이 거의 인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산은이 역할을 잘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장애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단에 후원금

KEB하나은행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5억원 후원

KEB하나은행은 12일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5억원을 후원했다.

이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KEB하나은행 임직원들은 경기도 이전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을 방문,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이천훈련원장 및 50여 명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이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아시아 패러 게임, Asian Para Games)의 전 국민적 관심 고취와 함께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실현코자 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김문호 기자 kmh@

NH농협銀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 출범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해외법인인 ‘농협파이낸스 캄보디아’를 공식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행 최초 해외 인수합병 성공사례인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는 프놈펜, 시하누크빌, 시엠립 등 캄보디아 3대 도시를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소상공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는 농업금융모델을 도입해 농기계 할부대출 등 상품 다양화 뿐 만 아니라 농업 및 소상공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캄보디아 농업 및 서

민금융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견실한 금융회사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출범식에 앞서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를 예방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차에 찬토(H.E. Chea Chanto) 총재는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가 농협은행이 지닌 농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현지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으며,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원했다. /안상미 기자

내달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알릴 필요 없어

다음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

(3개월~5년) 등만 고지하면 된다. 단 장애 인건보상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청약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신한銀, ‘도심 속 일터학교-카페 두드림’ 오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일자리 창출 교육부터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제공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 15층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도심 속 일터학교-카페 두드림’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 속 일터학교’는 신한은행 직원이 사용하는 다목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신한심포니’ 내에 카페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부터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직원이 카페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사회공헌 사업 모델을 새롭게 시도한다. 이날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이 카페를 방문해 커피를 주문하면서 ‘카페 두드림’의 첫 고객이 됐다.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6개월 과정으로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음료 제조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 15층에서 진행된 ‘도심 속 일터학교-카페 두드림’ 오픈 행사에서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사진 가운데)이 1기 교육생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및 개발 ▲재고 관리 ▲위생 및 안전교육 등 바리스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과 함께 카페 운영을 통한 고객 응대 등 현장 감각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도심 속 일터학교-카페 두드림’은 신한은행 임직원의 착한 소비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새로운 사회공헌의 장”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가

치 창출의 모범사례가 되는 임팩트 금융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플랫폼인 ‘두드림 스페이스’ 사업과 강한 중소·중견 기업과 청년 인재들을 매칭해주는 ‘청년취업 두드림 기고만장(氣GO萬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우리은행, 제주신보와 소상공인 금융 협약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과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 발급한 3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이다. 5년간 최대 1.0%포인트(연 0.2% 포인트)의 보증



이창재 우리은행 중소기업(겸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료가 우대된다. ‘제주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추가 이용하면 각종 은행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콘서트’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프라이빗 बैं킹 ‘골드앤와이즈(GOLD&WISE)’ 고객 1000여 명을 초청해 ‘골드앤와이즈 콘서트: 정경화 & 조성진 듀오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2018 예술의전당 월드 프리미어 시리즈’ 중 하나다.

이날 공연에서는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차세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환상적인 호흡이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안상미 기자